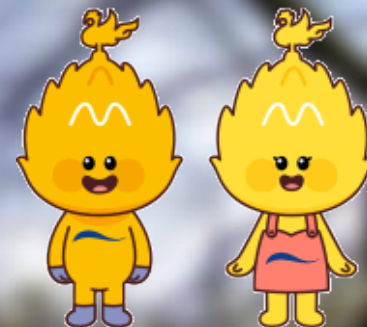




백제의 도읍 부여(扶餘)의 숨결을 찾아





주제

백제시대로부터 지금까지
단 한번도 명칭이
바뀌지 않은 오랜 군이며,
백제의 100년 이상 도읍을
유지한 위대한 지역 방문

목적

삼국 중 가장 먼저 발전하기
시작한 백제의 발자취를
직접 느끼고 체험하여,
백제의 우수성을
널리 알리고자 합니다.

일정

1박 2일
정림사지
정림사지 5층 석탑
국립부여박물관
백마강
백제문화단지
부소산성
낙화암
궁남지



정림사지



정림사지 (定林寺址)

- 백제 사비도읍기에 건립된 사찰로 산이 아닌 도성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백제의 불교 숭배를 알 수 있었다.
- 남북 일직선상에 중문, 탑(부처의 사리를 모심), 금당(불상을 모심), 강당(경전을 공부하는 곳)을 배치한 백제가람의 대표적인 모델이고,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.
- 정림사지오층석탑은 정돈된 형식미와 세련되고 완숙한 미를 보여 준다. 목탑적인 기법을 볼 수 있지만 목조의 모방을 벗어나 창의적 변화를 시도하여 완벽한 구조미를 확립하였다.
- 정림사지오층석탑은 백제 사비성을 침공한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탑의 1층 탑신에 승전기공문인 ‘대당평백제국비명’ 을 새겨 놓아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.
- 정림사지석불좌상의 머리는 제작 당시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다시 만들어 얹은 것이다. 신체는 극심한 파괴와 마멸로 형체만 겨우 남아 있다.
- 백제의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파되는 과정을 알게 되었고, 백제의 후손인 내가 너무 자랑스러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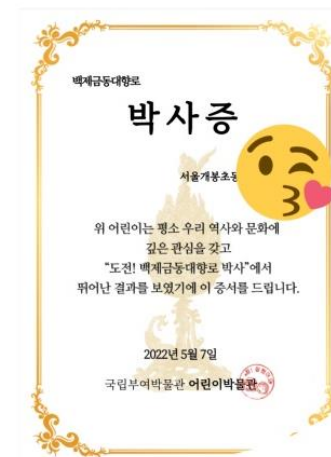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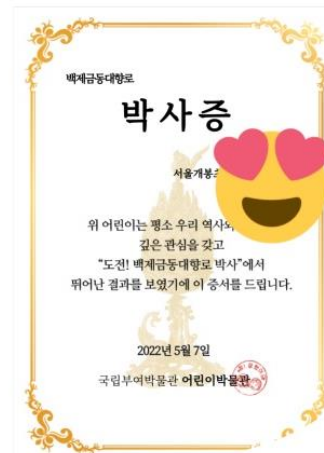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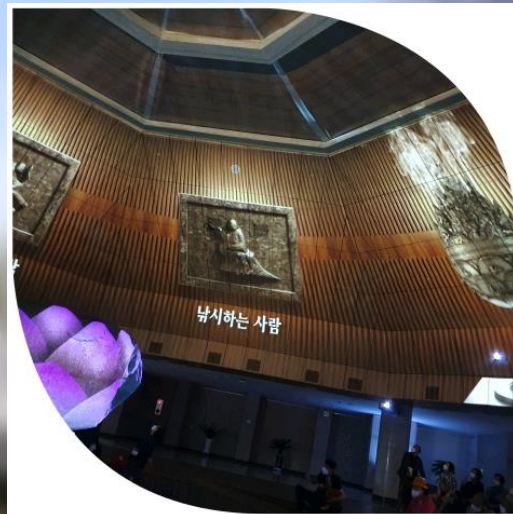




국립부여박물관



- 총 4개 관(부여의 선사와 고대문화, 사비백제와 백제금동대향로, 백제의 불교문화, 기증으로 빛난 문화재 사랑)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.
- 대표 유물로는 백제금동대향로가 있다.
백제금동대향로는 향을 피워 나쁜 기운을 막는 도구로, 봉황 한 마리가 향로 꼭대기에 앉아 있으며, 뚜껑은 부드러운 능선이 겹겹이 쌓인 산(박산) 모양이다. 산 사이와 봉황에 구멍 12개를 내어 향의 연기가 피어 오르도록 만들었다. 백제금동대향로의 관한 15문제를 풀고 통과하여 박사증을 수여해서 너무 뿌듯했다.
- 박물관 로비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레이저 쇼와 동영상을 통하여 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을 수 있게 되었다.
- 사비성에 살았던 백제인의 일상과 정치, 행정, 종교 의례 등 다양한 생활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다.
- 치미, 다양한 기와와 불상을 보며 백제인의 뛰어난 공예 기술에 감탄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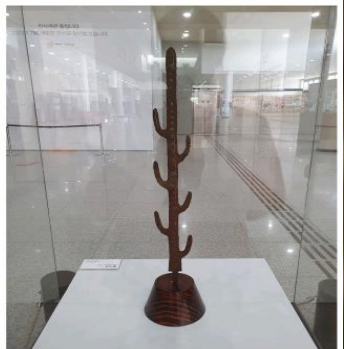




백제문화단지



- 1,400년 전 우수한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왕국 백제를 축소해 놓은 곳
- 능사: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백제 왕실 사찰로 부여 능산리사지를 원형 그대로 재현했고, 백제금동대향로가 발굴 능사 5층 목탑은 국내에서 최초로 재현된 백제시대의 목탑으로 높이가 38m로 매우 크다.
- 위례성: 백제 건국 초기 한성기 도성의 모습을 재현. 위례궁과 고상가옥, 관리들의 집을 재현했고, 서울의 풍납토성이 한성기 도성으로 추정된다.
- 생활문화마을: 백제인의 생활 풍습을 알 수 있는 곳으로 중류 가옥과 서민 계급의 가옥을 연출했다.
- 사비궁: 백제 문화 절정인 사비시대 왕궁의 모습을 최초로 재현. 백제인의 섬세한 건축 양식으로 너무 아름다운 자태였다.
- 천정전: 사비궁의 중심으로 '하늘의 뜻에 따라 정치를 했다' 는 의미를 담은 건물
- 흑치상지: 백제의 부흥을 일으킨 장군
- 사비천도: 백제 26대 성왕이 웅진(공주)에서 사비(부여)로 수도를 옮긴 것





부소산성(낙화암)



- 백제 사비기 왕궁의 배후산성. 평상시에는 왕궁의 후원 역할을 하다가 위급할 때에는 왕궁의 방어 시설로 이용되었다.
- 서쪽으로는 백마강을 끼고 부여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부소산 정상에 건축. 소나무가 많아 부소(소나무의 옛 이름)산성이라고 부른다.
- 낙화암: 백마강가에 있는 40m 절벽으로 백제가 함락 당할 때, 많은 백제인들이 뛰어내려, 타사암(떨어져 죽은 바위)라 불리었으나, 후대에 낙화암(꽃이 떨어지는 바위)으로 바뀌어 불렸다.
- 고란사: 낙화암 아래 백마강 절벽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.
- 낙화암에서 떨어지진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어진 절
- 삼충사: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백제의 세 충신 (성충, 홍수, 계백)을 모시는 사당
- 영일루: 왕이 멀리 계룡산의 연천봉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, 나랏일을 구상했다고 전해지는 이층 누각
- 사자루: 부소산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
- 백화정: 백마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낙화암 정상 바위 위에 육각 지붕으로 세워진 정자





궁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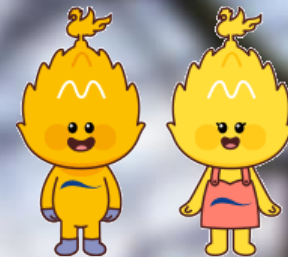


- 신라 선화공주와 결혼한 무왕의 서동요 전설이 깃든 곳
- ‘삼국사기’에 “백제 무왕 35년(634) 궁의 남쪽에 못을 파 20여리 밖에서 물을 끌어다가 채우고,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었으며, 못 가운데는 섬을 만들었는데 방장선산(方丈仙山)을 상징한 것 (신선이 살던 산)”이라는 기록이 있다.
- 못 가운데 섬을 만들어 신선사상을 표현한 궁남지는 우리나라 최고(最古)의 인공정원으로 백제의 노자공은 일본에 건너가 백제의 정원 조경기술을 전해주었다고 한다.
- 백제가 삼국 중에서도 정원을 꾸미는 기술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. 낮과 밤 모두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다.
- 경주의 안압지 보다 약 4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 백제인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풍류도 엿볼 수 있었다.
-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인공연못 중에 가장 오래 된 곳
- 포룡정 : 궁남지 가운데 있는 정자로 ‘용을 품고 있는 정자’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.





역사 탐방을 마치며...



학교에서 삼국시대에 대해 배우고, 백제금동대향로에 대하여 배웠다.

하지만, 백제인의 생활과 백제금동대향로에 대해 자세하게 알진 못했던 것 같다.

고구려보다 늦게 세워진 나라 백제.

그래도 가장 먼저 발전하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풍족하고 다양한 나라와 무역을 하며 발전한 나라이다.

하지만 그에 비해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.

아니 내가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을까?

이번 백제의 도읍인 부여 역사 탐방을 통해 우리 조상인 백제인의 유물들을 살펴 보고, 그 분들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.

특히나 백마강을 직접 건너 볼 수 있는 수륙양용 시티투어를 하며, 낙화암을 강에서 보며 그 당시 백마강으로 몸을 던진 분들을 마음을 느껴 보려고 애썼다.

백제문화단지에서 '백제왕의 보물상자를 열어라' 를 미션을 참여하며, 더 꼼꼼히 둘러 볼 수 있었다.

아름다운 한옥에서 하루 밤을 머물며, 1박만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컸다. 다음에 다시 꼭~ 부여를 방문하고 싶다.

친구들에게도 백제와 부여에 대해 많이 알려 주어야겠다.

